

# 다윗, 왕관의 무게를 견뎌낸 왕

\* 6/24(목) 사무엘하 ⑤ 18-20장

사울과 다윗 1-4장	다윗 5-24장	
죽음, 사울 가문의 몰락 1-4장	<p>이스라엘의 왕 다윗 5장 여호와와 궤와 언약 6-8장 다윗과 므비보셋 9장 다윗의 죄, 하나님의 용서 10-12장</p> <p>▶ <b>압살롬의 폭주, 다윗의 도피</b> 13장-19: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논과 압살롬의 누이</li> <li>· 압살롬의 귀환, 음모</li> <li>· 쫓기는 아버지, 쫓는 아들</li> <li>· <b>아들의 죽음, 아버지의 애도</b></li> </ul>	<p>▶ <b>다윗의 귀환</b> 19:9-21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윗, 예루살렘 귀환</li> <li>· 시므이 / 므비보셋 / 바르실래</li> <li>· 유다 사람 vs. 이스라엘 사람</li> <li>· 베냐민 사람 세바, 반란</li> <li>· 삼 년 기근과 사울 가문, 처단</li> </ul> <p>다윗의 찬송, 유언 22장-23:7 다윗의 용사들 23:8-39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의 보응 24장</p>

## Before 출처며 읽기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 After 묵상하기

나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 ● 아버지(父)의 이야기 : 전하고픈 고백

수년 전 사울에게 쫓긴 것처럼 다시,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아버지의 통치를 무너뜨릴  
공작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아들입니다(16:21-22).

아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광야에서 텅 빈 경건을 채웠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18:5).”

아버지는 예루살렘 다윗 성 고지(高地)에서  
여리고 길을 따라 요단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그 길은 천 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오르신 길입니다.  
그는 내려왔고, 주님은 오르셨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과 같은 길입니다.  
나는 내려오고 주님은 오르시면,  
막혔던 관계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통성경 길라잡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그러나 그가 <마셔야 할 쓴 잔>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군대를 피해 달아나던 중, 아들의 풍성한 머리카락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버립니다.  
노새는 노새대로 가버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아들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군사령관 요압은 그의 <적>을 지체 없이 죽이고야 맙니다(18:9-15).

아버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되찾고, ‘그다움’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리 못한 자식이라도, 압살롬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뒤늦은 사랑 고백은 아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18:33).”

“...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 23:5).”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누린 그가  
죄로 인한, 고통의 현실을 마십니다. 그의 잔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 ● 왕(王)의 이야기 : 메꾸고픈 공백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명 이상이 죽었고  
다윗 왕은 승리했습니다. 승전의 기쁨과 패전의 아픔 속에, 백성들은 왕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모여, 다윗 왕의 귀환을 논의합니다.  
앞서 그들은 왕자의 난(亂)을 지지하며,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 일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19:9-10).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움직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지를 꾀하여, 유다 지파와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19:11-12).  
유다 지파의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워, 요압을 견제합니다(19:13).  
잃어버렸던 민심을 되찾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시 그들의 왕이 됩니다(19:14-15).

기회주의자 시므이가 1천 명의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왕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전에 왕과 왕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은 자입니다(16:5-13).  
음지의 적을 양지에서 포용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회로 삼습니다.  
왕의 고통에 동참하며, 왕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린 므비보셋,  
왕의 고통에 후원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궤한 바르실래도 왕을 영접합니다.  
바르실래에게 받은 은혜를 왕은 그의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왕상 2:7).

나에게 주어진 왕관의 무게가 있습니다. 왕관을 쓴 자는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환난, 가난, 고난 중에도 성도(聖徒)는 신앙의 정도(正道)를 걷습니다.